

# “게임만 검열, 형평성 어긋나”... 헌법소원 최다인원 청구

(21만 751명)

뉴단간론과V3, 전체 이용불가 판정 세계 각국선 15세·17세 이용 가능 다른 분야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 명확성의 원칙 위반...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역사상 역대 최다 인원인 약 21만 명의 게이머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게임산업진흥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화 및 드라마와는 달리 게임만 엄격한 사전 검열 범망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 유튜브 ‘김성희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희 씨와 한국게임이용자 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지난 8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21만751명의 헌법소원을 대표로 제출하기 앞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 소원 청구 대상이 된 법령은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3호다. 해당 법령은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겸 변호사와 유튜브 김성희 씨(왼쪽부터)가 지난 8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위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안재선 기자

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관한 조항이다. 즉,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게임물을 제작, 반입하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관련 게임물은 동법 제22조에 따라 등급 분류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어 유통이 원천 차단된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형평성이다. 기

자회견에 나선 유튜브 김성희 씨는 이번 헌법소원에 단초가 된 게임 ‘뉴단간론과V3’를 언급했다.

김 씨는 “(해당 게임은) 세계 각국에서도 15세, 17세 정도로 이용 가능한 게임”이라며 “나치의 역사 때문에 게임의 폭력성 검열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독일에서조차 16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게

임이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게임을 19세 이용가 성인 등급도 아니고 전체 이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게임 관련 타 국가와의 비교를 넘어 국내 게임과 다른 예술 문화 분야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씨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K 콘텐츠 위상을 세계에 떨친 좋은 작품으로 찬사받는 반면 그와 (내용이) 비슷한 이 게임은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만 등급 분류 거부 판정을 받았다”며 “만약 오징어게임의 피디가 드라마 피디가 아닌 게임 제작 디렉터였다면 그는 위대한 창작자가 아닌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가 생긴 배경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의 명확성 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됐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철우 변호사는 “검열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내가 출시하려는 콘텐츠가 검열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제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은 돈 들

여 제작하고, 개발하고, 수입해 와서 번역하고 등급 분류 받아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해당 법이 명확성의 원칙, 즉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위반 사항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게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에 따른 게임 콘텐츠 규제가 (게이머들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 향유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업계 종사자들의 창작 자유를 제한한다”며 게이머의 관점에서, 게임을 창작하는 창작자의 관점에서도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법 헌법 소원 청구 건과 관련해 유튜브 김성희 씨를 오는 17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으니 여야 합의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대웅제약, 글로벌 시장서 K제약 기술 뽐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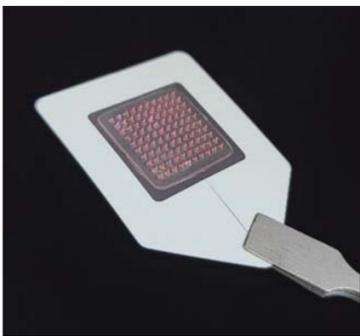
이탈리아 CPHI서 제제 기술 선배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상용화 목표 펙수클루·엔블로 해외 진출도 박차

대웅제약이 국산 신약 ‘펙수클루’와 ‘엔블로’의 성과를 이어갈 혁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공유하고 K제약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

대웅제약은 오는 10일까지(현지 시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 ‘CPHI 2024’에서 다양한 제제 기술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대웅제약은 약물 전달 시스템(DDS) 분야에서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응용해 세계 최초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웅제약 계열사 대웅테라퓨틱스의 마이크로니들 기술로 구현한 ‘클로팜’은 가로·세로 1cm<sup>2</sup> 면적 안에 약 100개의 미세한 바늘로 구성된 플랫폼이다. 바늘이 체내 투입 후 녹으면서 약물을 방출하는데, 가압건조 공정과 완전밀착 포장에 적용돼 약물의 균일성과 안정성이 극대화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마이크로니들은 오염되기 쉽고 약물이 균일하지 않은 등 단점이 있었는데 클로팜은 이를 모두 극복했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패치. /대웅제약

대웅제약과 대웅테라퓨틱스는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성장호르몬 마이크로니들 패치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승인받기도 했다. 생물의약품 용해성 마이크로니들로는 국내 첫 사례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한 달에 한번 맞는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 주사제’를 공개한다. 대웅제약은 약물 유지 효과는 늘리고 투약 빈도는 줄인 데다 통증 없는 마이크로니들까지 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환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대장정결제 ‘DWRX1010’도 내놓는다. 기존 대장 내시경을 위해 처방되는 대장정결제와 달리 이번 행사에서 처음 선보이는 대장정결제는 사이즈가 매우

작은 ‘미니 알약’ 형태로 목 넘김이 편해 대 장내시경을 준비하는 환자들이 쉽게 복용할 수 있다.

올해로 10년째 CPHI에 참가하고 있는 대웅제약은 이처럼 기술적 우위라는 기업 입지를 강화하고 2년 연속으로 신약개발에 성공한 펙수클루와 엔블로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펙수클루와 엔블로는 각각 제34호, 36호 국산 신약으로 대웅제약은 이들 제품의 성장세에 힘입어 ‘국산 블록버스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P-CAB(캡)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펙수클루’의 경우 지난 2022년 7월 출시 후 올해 5월 기준으로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만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116.8% 증가한 526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올해 연매출 1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SGLT-2 억제제 신약 ‘엔블로’는 적응증 추가를 위해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증의 만성신장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에 대한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올해 멕시코에서 엔블로 품목허가를 신청해 오는 2025년 안에 멕시코 현지에서 정식 발매하는 등 중남미 지역 공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mlee236@

## 신세계푸드, 성수동서 ‘식물성 음료’ 행사

카페 8곳과 ‘카페 라이스 베이스드’ 진행

신세계푸드는 식물성 음료 ‘유아얏유 잇라이스 베이스드(이하 라이스 베이스드)’의 소비자 경험 확대를 위해 성수동 유명 카페들과 협업 행사 ‘카페 라이스

베이스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성수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카페 라이스 베이스드’는 ‘구육희씨’, ‘기달빙’, ‘라바트리’, ‘로우키’, ‘모피크’, ‘바이러닉 에스프레소 바’, ‘커피넵 로스터스’, ‘클래식 해

레커피’ 등 유명 카페 8곳에서 ‘라이스 베이스드’를 활용해 만든 음료와 디저트 등 트렌디한 메뉴 14종을 즐길 수 있는 행사다.

‘라이스 베이스드’는 신세계푸드가 국산 가루쌀, 현미유 등 100% 식물성 원료를 활용해 깔끔하고 고소한 맛을 구현한 식물성 음료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LG생활건강, 화장품 등 최대 70% 할인

오는 13일까지 ‘엘지력키페스타’

LG생활건강이 오는 13일까지 네이비쇼핑 내 LG생활건강 브랜드 스토어에서 ‘엘지력키페스타’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엘지력키페스타’는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를 최대 70% 할인가로 판매하는 행사다.

뷰티 브랜드 중에선 더페이스샵의 경우 최대 70% 할인과 함께 도착보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온드, 오후, 숨37°, 빌리프, CNP, 수려한, 이자녹스 등도 이번 행사에 참가한다.

각 스토어별로 구매 금액의 최대 15% 추가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네이비 N포인트 최대 20% 추가 적립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브랜드 별로는 일정금

액 이상을 구매하면 각 브랜드 화장품 샘플, 파우치, 브러시 등 다양한 사은품을 한정 수량으로 받아볼 수 있다.

생활용품에서는 삼푸, 치약,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최대 63%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닥터그루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맥주효모 성분이 담긴 마이크로바이옴 맥주효모 삼푸를 비롯해 멀티퍼펙션부터, 스칼프솔루션, 밀도케어까지 다양한 제품군에 최대 57% 할인을 적용한다. 피지오겔은 환절기에 맞춰 피부 장벽 개선을 위한 데일리문 앰플, DMT 크림, 신제품 베리어 크림 등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LG생활건강은 코카-콜라제로 등 인기 음료를 최대 40% 할인가로 선보인다. /이정하 기자

## 아모레퍼시픽 구매했, 홈 캔들 컬렉션 선봬

총 5개 향으로 구성

아모레퍼시픽은 니치 향수 브랜드 구매했에서 홈 캔들 ‘레 조르 구매했’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컬렉션은 베스트셀러 향과 새로운 향 2가지를 포함해 총 5개 향으로 구성됐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구매했의 대표 향 ‘윈 포레 도르’는 시트러스한 향과 우디한 향으로 차갑고 깨끗한 겨울 숲의 향을 표현한다. ‘엔 에어 드 아드리앙’은 평온한 느낌을 전달하고, ‘윈드 메종 드 캄빠뉴’는 장미와 블랙 커런트 향이 어우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구매했이 새롭게 선보이는 ‘앰버 에 볼립페’와 ‘부아 서더’는 각각 샌달 우드, 스토키우드 향이다. ‘앰버 에 볼립페’는 사막의 고요한 순간을 구현한 부드러운



구매했 홈 캔들 '레 조르 구매했' 컬렉션 /아모레퍼시픽

향인데 비해 ‘부아 서더’는 모닥 불에 타오르는 나무 연기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레 조르 구매했’ 디자인은 각진 형태에 금속 라벨 장식이 더해져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인테리어 효과까지 갖췄다. /이정하 기자